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09-2호)

# 여론속의 여輿論論

2022년 종교인식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

2022. 12. 7.

---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연구진

###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1

##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 불교·천주교, 개신교·원불교, 이슬람교 순 불교,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 지난해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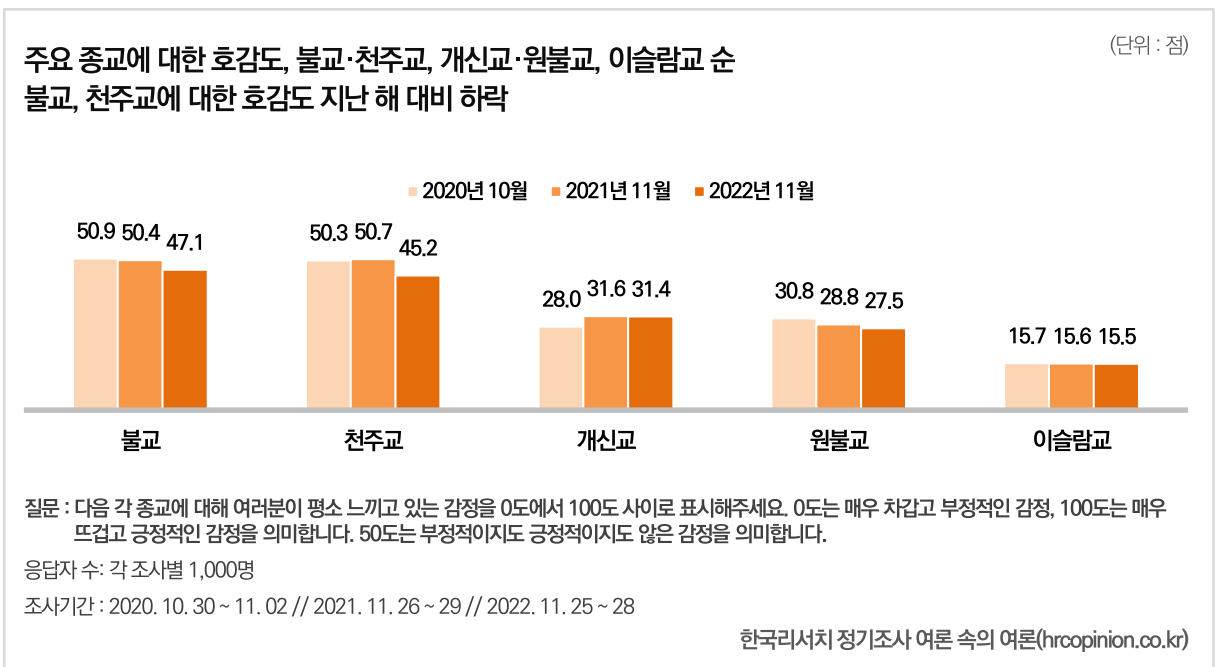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4대 종단인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다. 호감도는 감정은도 방식으로 측정했다. 각각의 종교에 대해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0점,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100점,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면 50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 이어, 5개 종교 중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교 호감도는 47.1점, 천주교 호감도는 45.2점으로 보통(50점)보다 약간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개신교 호감도가 31.4점, 원불교 호감도가 27.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슬람교 호감도는 15.5점으로 5개 종교 중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1년 전인 [지난 해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천주교(50.7점 → 45.2점, 5.5점 하락)와 불교(50.4점 → 47.1점, 3.3점 하락) 호감도가 소폭 하락했다. 전체 응답자 중 천주교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0-49점 응답)은 37%,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51-100점 응답)은 36%로 비슷했다. 불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 35%,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 39%로 천주교와 큰 차이는 없이 비슷했다.

개신교 호감도는 1년 전(31.6점)과 동일했다. 개신교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2%인 반면 51점 이상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쳐, 비호감인 사람이 더 많았다. 원불교 호감도 또한 1년 전(28.8점)과 큰 차이가 없었고, 호감도가 보통 미만인 사람은 전체의 62%, 보통을 넘는 사람은 11%였다.

이슬람교 호감도 역시 1년 전(15.6점)과 동일했다. 전체 응답자의 83%가 이슬람교 호감도를 50점 미만으로 평가했고, 특히 매우 비호감(0-24점)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체의 72%에 달했다.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호감도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엇비슷  
개신교, 원불교, 이슬람교는 부정적 감정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

(단위 : %)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응답 비율	부정적			보통 (50점)	긍정적			계
	매우 부정적 (0-24점)	약간 부정적 (25-49점)	부정적 (0-49점)		약간 긍정적 (51-75점)	매우 긍정적 (76-100점)	긍정적 (51-100점)	
불교	27	8	35	26	21	18	39	100
천주교	29	8	37	27	20	17	36	100
개신교	49	13	62	18	9	11	20	100
원불교	51	11	62	27	8	3	11	100
이슬람교	72	11	83	15	2	1	2	100

질문 : 다음 각 종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개신교 호감도, 3-50대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 18-29세와 60세 이상에서는 소폭 하락  
개신교 신자가 스스로 평가한 자기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1년 전보다 6.7점 낮아져**

개신교 호감도는 남녀 모두 30점대 초반(남성 30.3점, 여성 32.5점)으로, 1년 전과 비슷했지만 여전히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30대부터 50대까지는 호감도가 소폭 상승한 반면, 18-29세와 60세 이상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60세 이상에서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18-29세에서 26.9점으로 가장 낮았다.

개신교 신자가 스스로 평가한 개신교의 호감도는 64.5점으로, 1년 전(71.2점)보다 6.7점 하락했다. 천주교 신자(25.1점), 불교 신자(20.4점),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22.8점)의 개신교 호감도는 모두 20점대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천주교 호감도, 40대 이상에서 하락  
천주교 신자 또한 자신이 믿는 종교 호감도 9.5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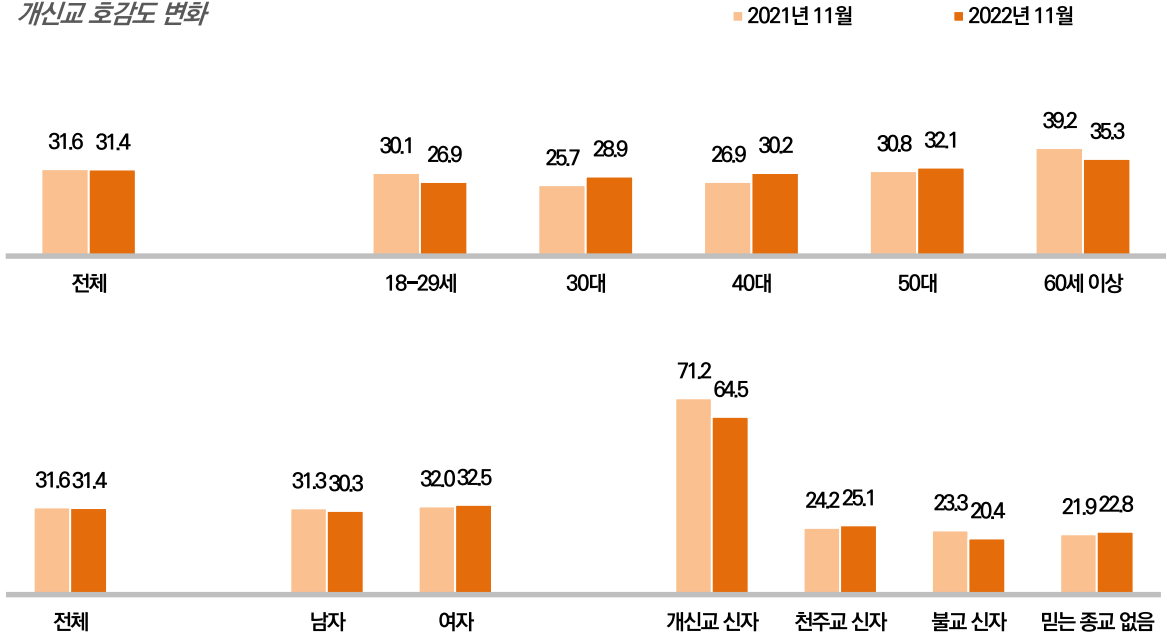
천주교 호감도는 남녀 모두 40점대 중반(남성 44.4점, 여성 45.9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이상에서 호감도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는데, 지난 해 40대 이상의 천주교 호감도는 50점 이상으로 보통을 넘었으나 올해는 40점대 중반으로 떨어졌다(40대 51.5점 → 46.9점, 50대 55.2점 → 46.7점, 60세 이상 52.9점 → 44.9점).

천주교 신자가 스스로 평가한 천주교의 호감도는 65.5점으로, 1년 전(75.0점)보다 9.5점 하락했다. 개신교 신자(43.6점), 불교 신자(41.8점),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43.0점)의 천주교 호감도는 모두 보통보다 다소 낮은 40점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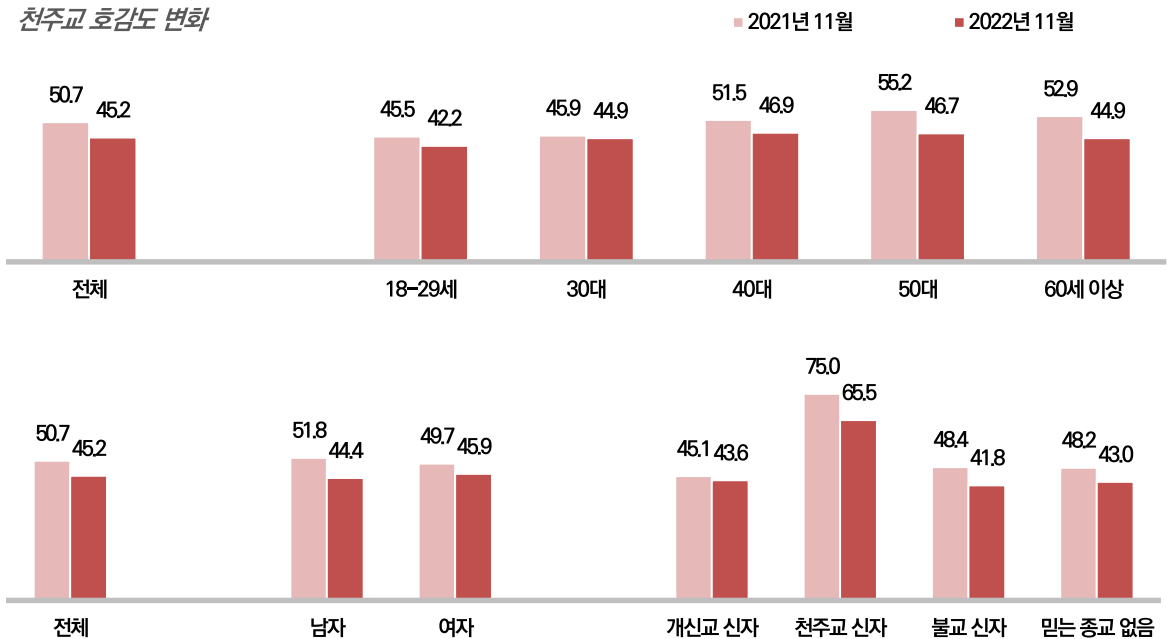
**개신교 호감도는 60세 이상, 천주교 호감도는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하락폭 커**  
**개신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가 스스로 평가한 자기 종교에 대한 호감도도 1년 전보다 하락**

(단위 : 점)

개신교 호감도 변화



천주교 호감도 변화



질문 : 개신교/천주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1. 11. 26 ~ 29 // 2022. 11. 25 ~ 28

## 불교 호감도, 50대 이상에서 하락 불교 신자의 불교 호감도도 5.2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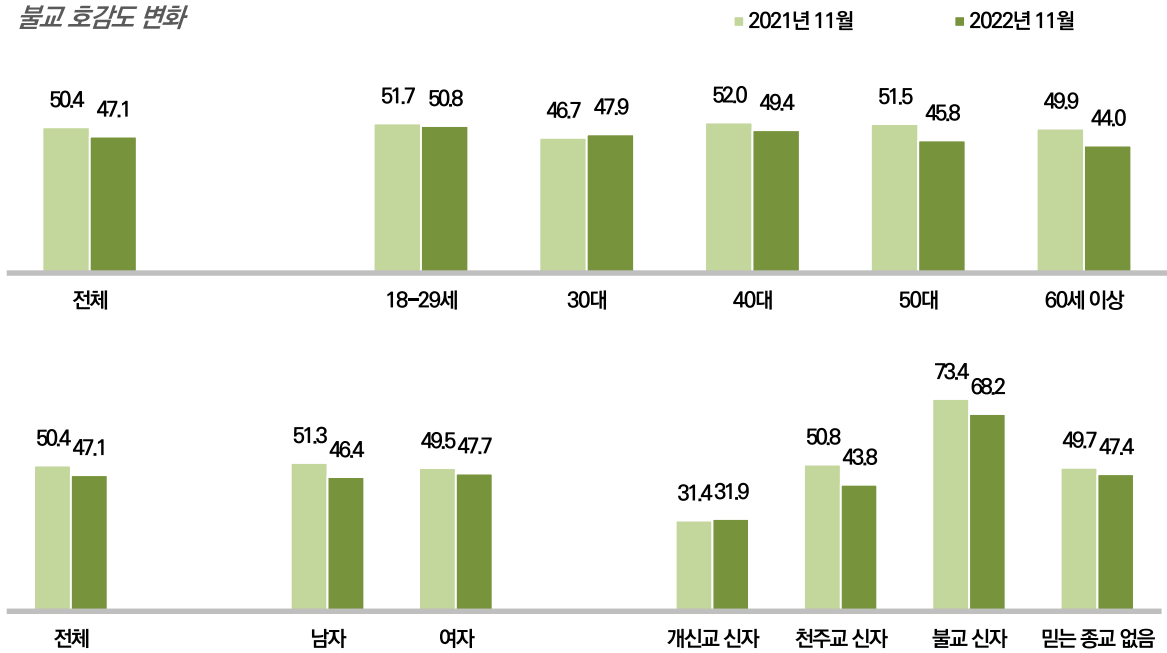
불교 호감도 또한 남녀 모두 40점대 중반(남성 46.4점, 여성 47.7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51.5점 → 45.8점, 5.7점 하락), 60세 이상(49.9점 → 44.0점, 5.9점 하락)에서 호감도 하락 폭이 컸다.

개신교, 천주교 신자 모두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했는데, 불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불교 신자가 스스로 평가한 불교의 호감도는 68.2점으로, 1년 전(73.4점)보다 5.2점 하락했다. 개신교 신자의 불교 호감도가 31.9점으로 낮았고, 천주교 신자(43.8점),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47.4점)의 불교 호감도는 모두 보통보다 다소 낮은 40점대를 기록했다.

### 불교 호감도, 50대 이상에서 하락 불교 신자 또한 자신이 믿는 종교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 5.2점 하락

(단위: 점)

불교 호감도 변화



질문: 불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11. 26 ~ 29 // 2022. 11.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원불교 호감도, 30대 이상에서는 20점대로 낮은 호감도 이슬람교 호감도는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10점대 수준, 매우 낮은 호감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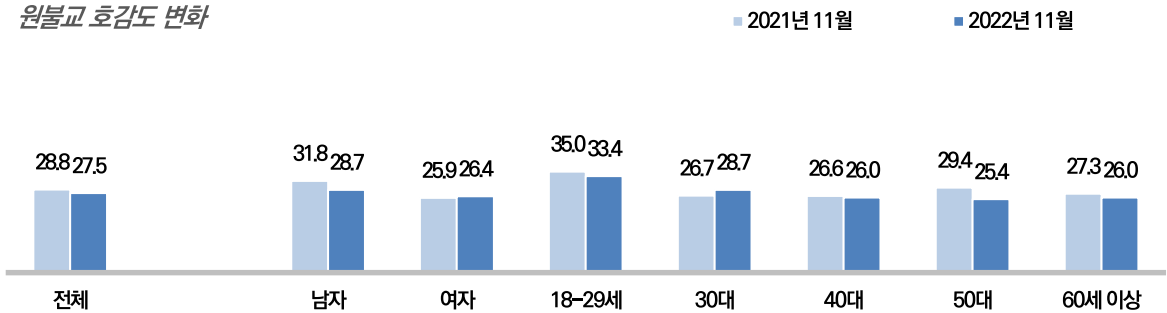
원불교 호감도는 남녀 모두 20점대 중후반의 낮은 호감도를 보였으며(남성 28.7점, 여성 26.4점), 33.4점을 기록한 18-29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20점대로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이슬람교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10점대 중반에 머물렀으며, 남녀 모두, 그리고 전 연령대에서 10점대로 호감도가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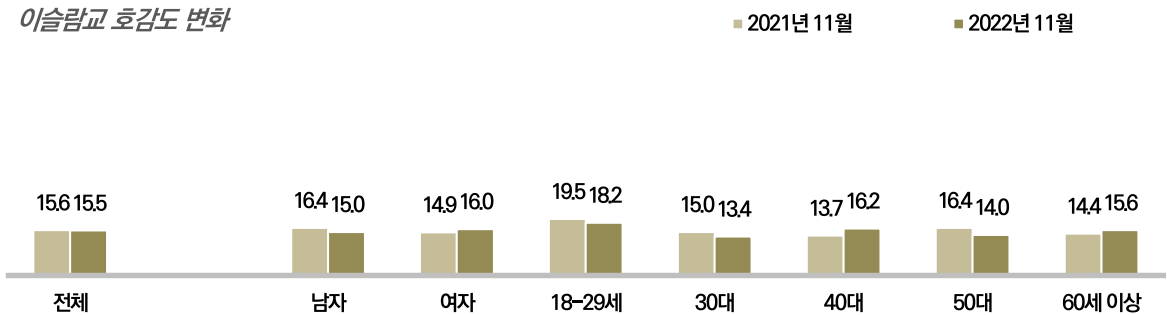
### 원불교 호감도, 30대 이상에서는 20점대로 낮은 호감도 이슬람교 호감도는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10점대 수준, 매우 낮은 호감도 보여

(단위: 점)

원불교 호감도 변화



이슬람교 호감도 변화



질문 : 원불교/이슬람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11. 26 ~ 29 // 2022. 11. 25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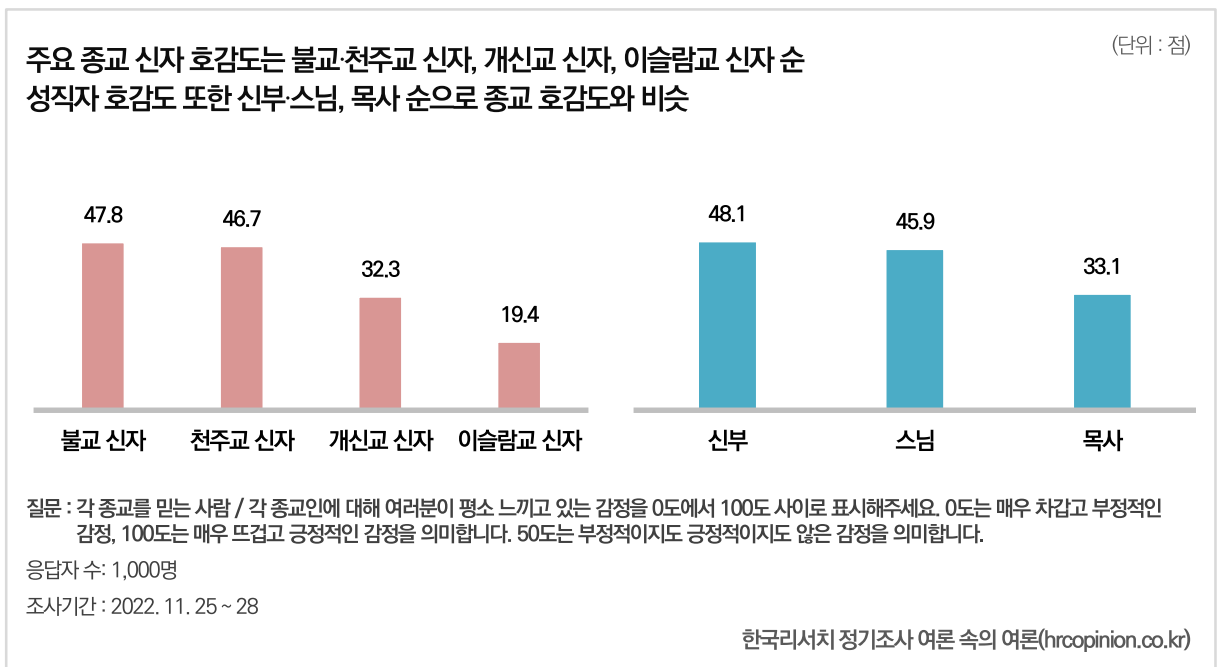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주요 종교 신자 호감도는 불교·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신자 순 성직자 호감도 또한 신부·스님, 목사 순으로 종교 호감도와 비슷

이번 조사에서는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 외에, 각 종교를 믿는 사람과 성직자에 대한 호감도도 같이 물었다. 각 신자별 호감도는 불교 신자(47.8점), 천주교 신자(46.7점), 개신교 신자(32.3점), 이슬람교 신자(19.4점)의 순서로, 종교 호감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성직자 호감도 또한 신부(48.1점), 스님(45.9점), 목사(33.1점)의 순서였다.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50점을 넘지 않았던 것처럼, 종교 신자 및 성직자 중에서도 50점 이상, 보통 이상의 호감도를 보인 것은 없었다.

각각의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 종교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 큰 차이 없이 비슷했다. 종교와 신자, 성직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때 각각을 다른 기준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2 종교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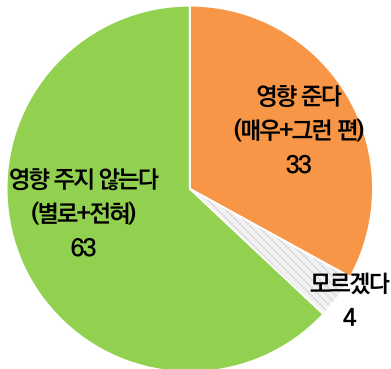
###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 33%, 1년 전 대비 4%포인트 감소 남성, 30대, 개신교 신자의 하락 폭 상대적으로 커

전체 응답자의 33%가 종교가 본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매우 영향을 준다 9%, 영향을 주는 편이다 24%), 63%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편이다 37%,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26%).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종교가 내 삶의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종교가 본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낮은 가운데, 남성(35% → 27%)과 30대(31% → 20%), 그리고 개신교 신자(83% → 72%)에게서 종교가 본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의 하락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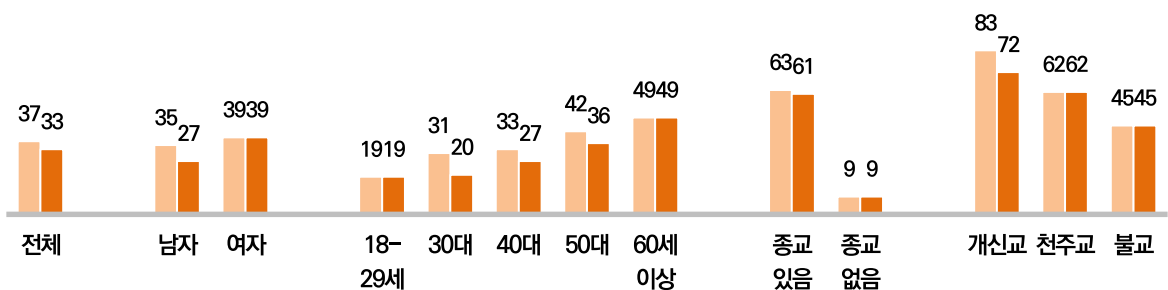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 33%, 1년 전 대비 4%포인트 감소  
남성, 30대, 개신교 신자의 하락 폭 상대적으로 커

(단위 : %)



'내 삶에 영향을 준다(매우+그런 편)' 응답

2021년 11월 2022년 11월



질문 : 종교가 귀하에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1. 11. 26 ~ 29 // 2022. 11. 25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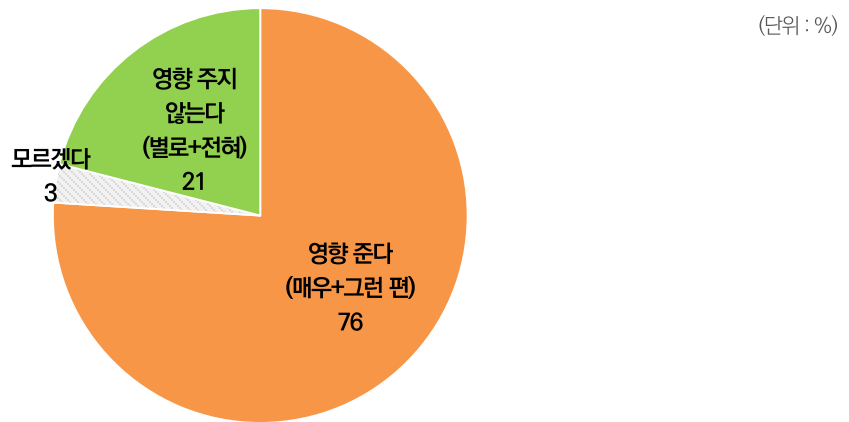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 76%, 1년 전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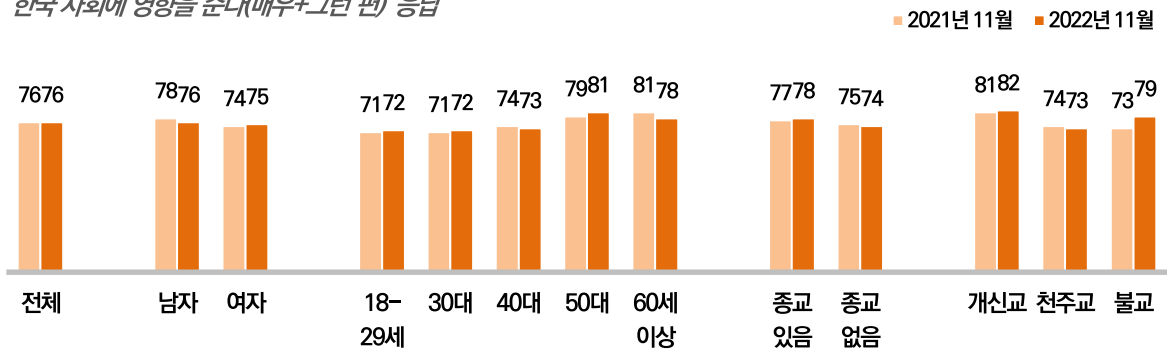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33%만이 종교가 본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으나,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매우 영향을 준다 14%, 영향을 주는 편이다 61%). 개개인에게는 아니더라도, 종교가 우리 사회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다.

성별, 연령대와 관계없이 70% 이상이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또한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78%) 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74%) 또한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 76%, 1년 전과 동일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매우+그런 편) 응답



질문 :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1. 11. 26 ~ 29 // 2022. 11. 25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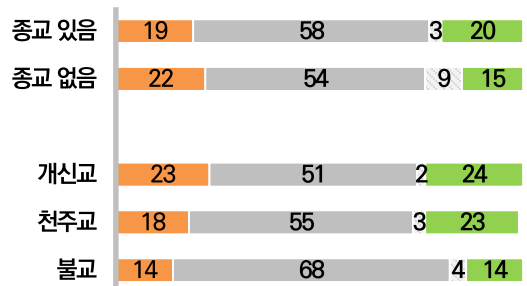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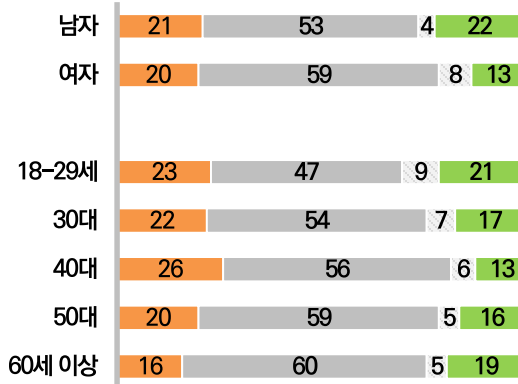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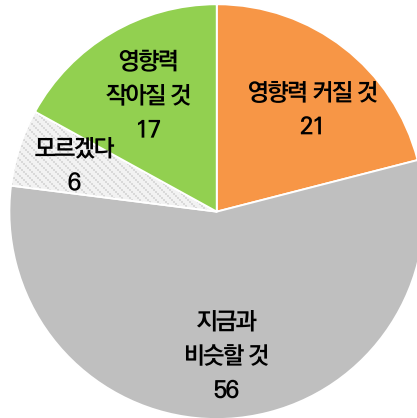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지금과 비슷할 것 56%

앞으로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56%)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는 응답은 21%, 작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7%였다. 성별이나 연령대,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지금과 비슷할 것 56%

(단위 : %)



질문 : 앞으로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3

## 종교의 효능감

### 종교를 믿는 것, 안정감 얻는 데 도움된다 79%, 긍정적 감정 갖는 데 도움된다 75% 종교가 없는 사람은 목표 달성, 정체성 찾기에 종교가 도움 된다는 응답은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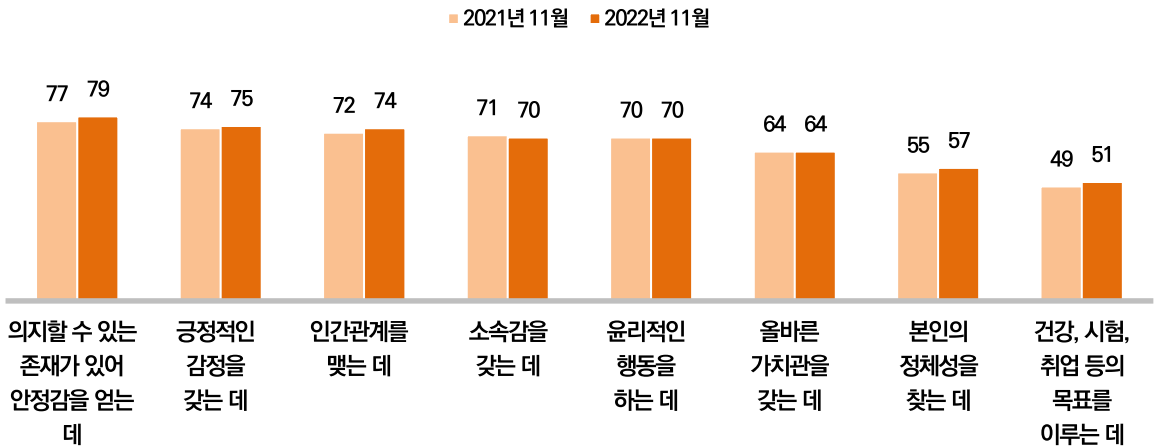
종교를 믿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79%),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데(75%), 인간관계를 맺는 데(74%), 소속감을 갖는 데(70%),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데(70%)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하였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데(64%),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데(57%)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 또한 과반 이상이었다. 건강이나 시험, 취업 등의 목표를 이루는 데 종교를 믿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51%였다. 모두 1년 전과 큰 차이 없이, 종교의 효능감에 대한 긍정 응답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은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종교의 효능감을 더 높게 평가했다. 특히 믿는 종교가 있는 응답자 중 88%가 종교를 믿는 것은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데,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3명 중 2명 이상이 종교가 안정감을 얻는 데, 인간관계를 맺는 데, 소속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건강, 시험, 취업 등의 목표를 이루는 데,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데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0%에 미치지 못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종교를 믿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43%)과 있는 사람(87%) 간 응답 차이가 컸다.

종교를 믿는 것, 안정감 얻는 데 도움된다 79%, 긍정적 감정 갖는 데 도움된다 75%

(단위 : %)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 도움이 되는 편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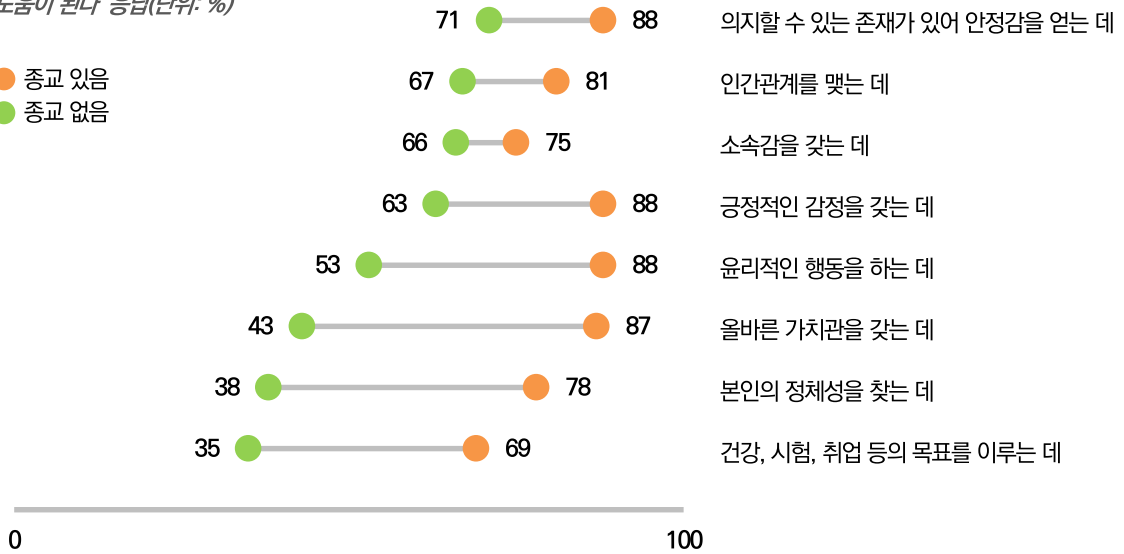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1. 11. 26 ~ 29 // 2022. 11.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비해 종교 효능감 높다고 인식**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목표 달성, 정체성 찾기, 올바른 가치관 갖는 데 종교가 도움 된다는 응답 낮아**

‘도움이 된다’ 응답(단위: %)

● 종교 있음  
 ● 종교 없음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 도움이 되는 편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10월 기준 약 80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2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232명, 조사참여 1,270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8%, 참여대비 78.7%)
조사일시	• 2021년 11월 25일 ~ 11월 2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